

긴급상황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허술

SOCIETY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광주 153곳 설치...수질표기 없거나 게시 ‘주먹구구’ 수질살균기 도입 예산 낭비 지적도...구 “관리 만전”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광주도 심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수가 오염에 취약함에도 관리 주체인 각 자치구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수질검사 후 결과표 게시 의무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전쟁 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시설이다.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 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하며, 지역에는 총 153개소(동구 12개소, 서구 26개소, 남구 27개소, 북구 27개소, 광산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기준에 따라 음용수와 생활용수 시설로 구분된다. 해당 시설은 ‘먹는물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항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수질관리로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항목을, 생활용수는 3년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표지판의 내용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있다.

다 질산성질소, 중금속 등 16항목에 맞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시설은 양수조치, 관정소독 후 재검사, 기준 초과 시 이용 중지나 용도 변경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시설을 관리해야 할 각 자치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수질검

사 결과를 민방위 부서에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시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 자치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안내 표지판은 곳곳이 훼손된 채 뜯어져 있었고, 또 다른 시설의 안내 표지판은 그동안 세워진 채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있었다. 수질검사 결과를 급수시설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하나 해당 결과를 제대로 알린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수년 전 결과가 그대로 비치돼 있고, 심한 곳은 2019년 결과가 게시돼 있거나 아예 게시판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 중에는 최신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관련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

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수 오염을 이유로 각 자치구가 16개소에 설치 예정인 ‘수질 살균기’의 경우에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수질 부적합률이 장비 설치 전(15%)·후(10%)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고, 해당 설비가 중금속 오염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각 자치구에는 각 9000만원 상당의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리 책임과 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비상 상황에도 시민의 식수 및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경찰청, 전남 A총경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검찰 직원들에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 혐의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이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대상에 올랐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A총경이 근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위압감 조성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직원들은 A총경이 내부 회의 과정에서 폭언과 비인격적인 언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총경의 거친 언행을 더는 참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상급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망에는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급자로부터 독단적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경찰은 “비인격적인 부서장의 행태가 너무 힘들어 경찰청 신고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를 했다”며 “최근 6개월이 34년 직장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노조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A총경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경찰관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베테랑 수사팀장들조차 상급자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인내심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비난·모욕·인신공격으로 변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많은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단순 업무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며 경찰청에 스스로 갑질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조만간 A총경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서구, 천원국시 어르신 건강 관리 3일 오후 광주 서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천원국시’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혈압, 심폐지구력 등 체력 및 건강 측정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음주 교통사고 최다 ‘광산구·여수시’

최근 5년간 698건·520건...“특정 지역 반복적 발생”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각각 광산구와 여수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3715명이 다쳤다. 이중 광주에서는 광산구에서 총 69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19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어 북구(650건·10명 사망·1114명 부상), 서구(610건·4명 사망·1006명 부상), 남구(200건·3명 사망·325명 부상), 동구(131건·1명 사망·219명 부상)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가장 많았다. 520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824명이 다쳤다. 목포시(450건·6명 사망·749명 부상), 순천시(373건·7명 사망·617명 부상), 광양시(291건·7명 사망·444명 부상), 나주시(228건·2명 사망·362명 부상), 해남군(124건·9명 사망·177명 부상), 영암군(118건·5명 사망·171명 부상)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1705건·14명 사망·2728 부상)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면서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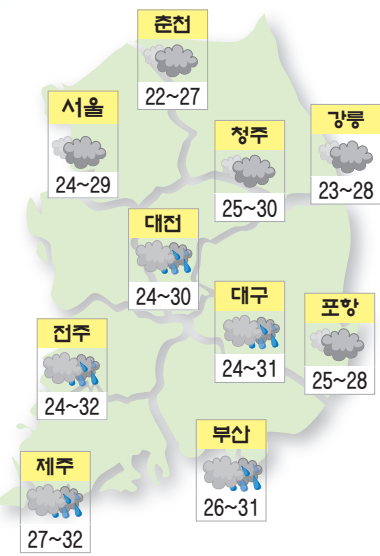
한빛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발전 재개

영광 한빛3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 재개에 들어갔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3호기(가압경수로형, 1000MW급)가 제20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이날 오전 1시32분 발전을 재개했다. 오는 6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빛3호기는 지난 7월 4일부터 61일간 진행된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를 받은 가운데 원전연료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검사, 저압터빈 분해점검 등 각종 기기의

정비와 설비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빛3호기는 다음 계획예방정비까지 16개월간 무고장·무정지 안전운전을 통한 양질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상의 발전소 상태를 유지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투명한 원전 운영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07 달출 16:59
예전 18:55 달진 01:49



광주	☁	24~32
목포	☁	25~32
여수	☁	25~31
순천	☁	24~33
구례	☁	24~28
광주	☁	24~28
임도	☁	23~28
흑산도	☀	21~26
고흥	☁	22~27
진도	☁	23~27

목포	밀물(고)	11:01 / --:--
	썰물(저)	05:40 / 17:03
여수	밀물(고)	06:38 / 19:39
	썰물(저)	01:22 / 12:38

낮을 운전하다 가로수 ‘랑’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6분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국립공원 내 충장사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갓길에 실어진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주변 식당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잠정 파악돼.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할 방침. 이산하 기자 goback@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